

탄원서

사건번호: 2026노212

피고인 : 윤석열

탄원인 :

주소: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이 탄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체포 방해 혐의는 그 때 당시 '공수처의 체포 권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오가는 때였으며, 절대로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적 체계를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나중에 자진해서 관저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 스크림, 위력 순찰, 차벽 설치를 통해 공권력 집행을 막은 것은 그곳이 '군사보호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에 나와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이는 공권력이 작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영장에 나와있는 곳만 수색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공간까지도 영장 없이 수색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선고하신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비대해지며, 삼권분립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구가 되는 것에 사법부 또한 기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어 선처를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시길 기대합니다.

첨부:주민등록증 사본

날짜: 2026. . .

탄원인 : (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부장판사 윤성식 귀중

우편번호: 06594

- 등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